

Capturing Changes with Design and Technology

‘디자인 × 기술’로 변화를 잡다

— JPDA의 연구회 활동을 통해 —

中越 出 / 공익재단법인 일본패키지디자인협회(JPDA) 이사 (다이니폰인쇄주식회사)

I. 서론

공익재단법인 일본패키지디자인협회(이하 JPDA)는 2020년에 창립 60년을 맞이하는 일본 유일의 패키지 디자인에 특화된 단체로, 패키지 디자인의 향상을 목표로 한 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그 성과를 사회를 위해 발신하고 있다.

필자는 인터넷위원회와 조사연구위원회(이하 조사연)을 담당하고 있다. 전자에서는 JPDA 공식사이트의 운영을 중심으로, 인터넷 미디어에 의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후자인 조사연의 역할은 ‘시대를 앞선 패키지 디자인의 조사연구의 기획과 실시’로 2008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에코와 패키지 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과 패키지’, ‘일본의 특산품 · 패키지 디자인’ 등 점차 연구 테마를 확대해왔다. 테마 별로 추진해온 조사연구의 성과를 연구회에서 공유함과 동시에 JPDA 사이트 ‘패키지 디자인【정보의 숲】’을 통해 발신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사회 · 생활자와 패키지 디자인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파악하고, 생각해야만 하는 과제의 유출과 가설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II. ‘패키지 디자인의 가치는 무엇인가’ 연구회

사회의 변화, 기술의 발전으로 패키지 디자인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미래를 위한 가치는 무엇일까? 조사연에서는 이러한 주제를 연구하며, 아웃풋/인풋의 장으로써 ‘패키지 디자인의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9년 3월에 개최한 제1회에서는 ‘2030년 포장의 미래 예측’을 연구해온 일본포장박사회 · 미래포장연구위원회(이하 미래포장연)의 회원들을 초대해 島田道雄 위원장(일본포장박사회 부회장)의 기조 강연, 조사연의 활동 보고 및 양 위원회 회원과 참가자들의 토론 등의 시간

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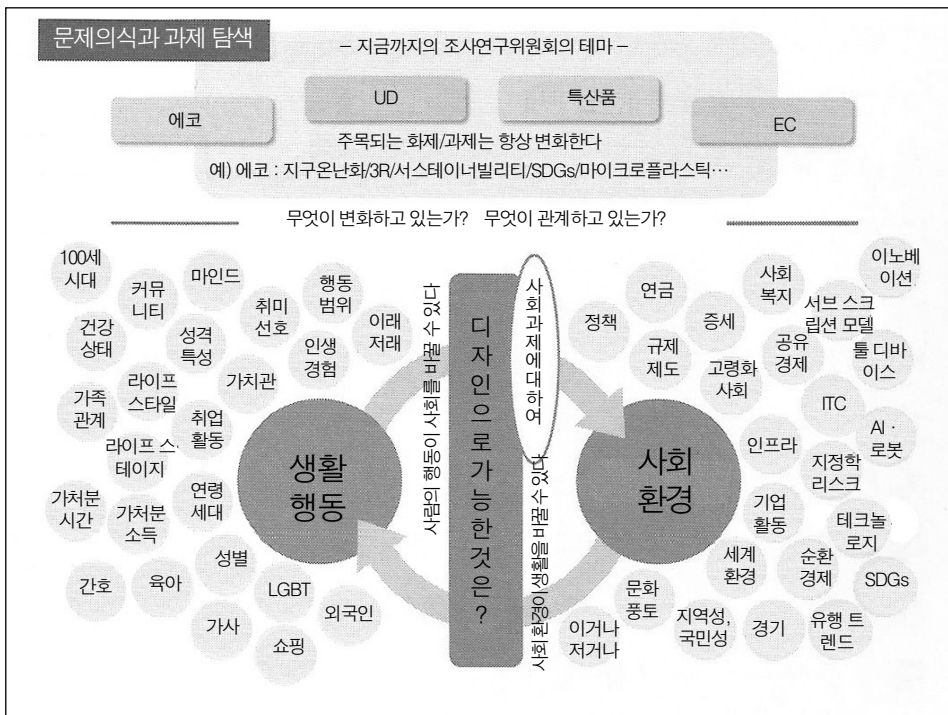
島田 위원장의 '2030년 포장의 미래 예측 개요'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는 미래포장연이 2016년부터 '포장을 통해 가야만 하는 미래를 제안하다'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 예측의 에센스를 배경이 되는 사회 과제나 예측되는 신기술과 함께 1시간으로 응축해 이야기했다. 사회와 포장의 미래가 연결되고 있는지, 테크놀로지가 무엇을 가져오는지 등을 설명해 기술과 디자인을 크로스해서 계속적으로 생각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다.

III. 조사연의 워크숍 활동

연구회의 제2부 토론에 앞서 JPDA 조사연이 2018년도에 추진한 워크숍에서 얻은 키워드와 가설의 예를 보고했다. 조사연의 초기 문제의식은 위원회 설립부터 노력해온 에코 관련 테마를 포함해 '과제는 항상 변화한다', '무엇이 변화해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가', '디자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이 있었다.

그 바탕에는 '사회 환경이 생활을 바꾸다', '사람의 행동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 등의

[그림 1] 문제의식과 과제 탐색



개념이 순환형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이해가 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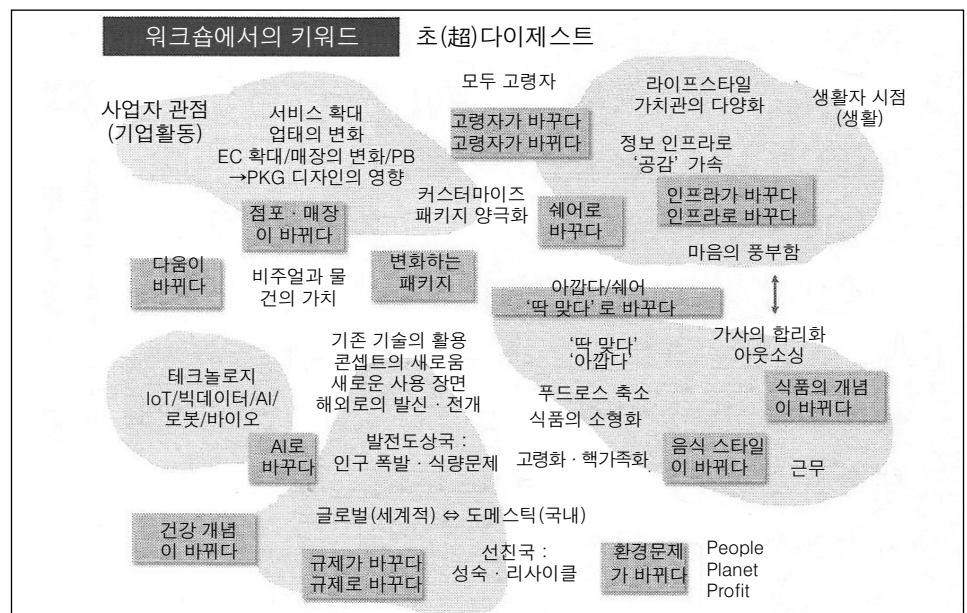
[그림 1]의 좌측 '사회 환경'의 주변에 배치된 작은 동그라미는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제도나 인프라, 기술 개발에서부터 그 당시의 경제상황이나 경기동향 등도 포함된다.

한편 그림의 우측 '생활행동' 주변의 동그라미는 한사람, 한사람의 행동을 좌우하는 요인의 일예이다. 각각 가치관도, 라이프스타일도 다르고, 사정도, 행동도 개별적이다. 같은 사람이라도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취직, 결혼, 육아, 간호, 정년퇴직 등)로 사정은 변화한다. 그때 제도나 인프라, 이용 가능한 기술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른바 시즌과 니즈·원츠의 관계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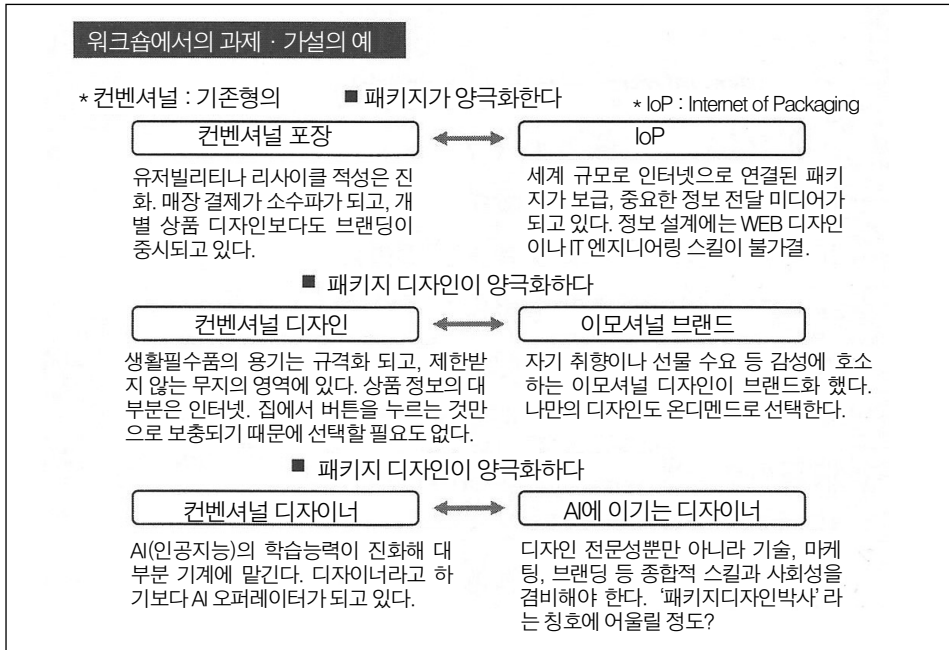
사회는, 사람은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조사연이 진행한 워크숍은 '미래에 생각을 달리다'라는 과제 탐색 행위였다. 워크숍과 병행해 JPI나 일본포장박사회 등이 주최하는 세미나나 전시회에도 참가해 폭넓게 정보를 수집했다. 팩트를 모으고, 그들을 엮어서 가설을 도출하고, 토론이라는 프로세스를 거쳐 변화의 예견을 탐색했다. 그것에서부터 얻은 키워드는 사업자 시점(기업 활동)과 생활자 시점(생활)의 양면이 되었다([그림 2]).

이들 요소는 패키지 디자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라이프스타일이나 가치관이 다양해지고, '물건의 소비'에서 '하다의 소비'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에는 같은 시간

[그림 2] 워크숍에서의 키워드



[그림 3] 가설의 예 ‘양극화’



을 공유하는 ‘시간의 소비’나 사회 정의적 ‘의미 소비’ 등의 단어도 들린다. 소비를 환기하는 구조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 내용물(물건)과 일체가 돼 상품을 형성하는 패키지 디자인에서는 어떻게 있을까? 물건의 가치는 어떻게 변화해가는 것일까? ‘무엇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라는 점에 주목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변화하지 않은 물건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생각하면, 다양한 면에서 양극화해가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3]).

■ 패키지가 양극화하다 : IoP(Internet of Packaging, 연결되는 패키지)가 등장하는 것이 당연한 시기에 연결되지 못한 기존형 패키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진화하는 유저빌리티나 리사이클적성에 특화하고 있는가?

■ 패키지 디자인이 양극화하다 : 쇼핑 프로세스가 변화해 매장에서의 상품 선택 기회가 줄어들면 디자인은 제한받지 않는 무지에 가깝다? 그 한편으로 감성에 요구하는 디자인이 많아지고, 매장 외에서의 브랜딩이 보다 중요시되다?

■ 패키지 디자이너가 양극화하다 : AI(인공지능)의 진화는 디자이너를 디자인 앱을

조작하는 오퍼레이터로 만들어버리는가? 크리에이티브뿐만 아니라 폭넓은 스킬을 겸비한 디자이너만 살아남는가?

이러한 것들은 극단적인 발상일지 모르지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생활자도)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아무쪼록 디자인 개발 측에서는 전문성이나 종합력이 극한까지 요구되고 있다. 연구회의 안내에 '2030년 미래(지금부터) 패키지 디자이너는 없어진다?' 라는 약간 자극적인 카피를 넣은 것은 그러한 이유도 있다.

IV. 생활자시점은 없어서는 안 된다

제1회 연구회 후반에는 '포장의 미래와 패키지 디자인의 가치'를 주제로 한 패널 토론을 진행, 미래포장연의 島田 위원장과 각 파트의 리더 3명, 조사연에서는 직종도, 연령도 다양한 5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양자의 강연·보고의 감상을 들은 후에 '서스테인어빌리티와 리사이클', '쇼핑이라는 행동'을 테마로 기술 사이드, 디자인 사이드, 특히 생활자 입장에서 의견을 교환했다. '쓰레기가 지원인가', '어떻게 분별하는가' 등 서스테인어빌리티라는 큰 테마도 매일의 생활에 직결하고 있다.

물건이 가정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선택할지, 안할지, 커뮤니케이션 전체의 디자인에 대한 기대도 이야기했다. 회장 참가자를 포함한 각각의 코멘트는 JPDA 사이트에 리포트로 기재했는데, 앞으로도 '디자인×기술'이라는 구조의 대화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패키지 디자인의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테마에 대한 노력, 연구회는 현재진행형이다. 제1회 연구회는 사회 과제와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현재 알고 있는 미래'를 폭넓게 공유하는, 이른바 킥오프의 장에 됐다.

9월에는 '쇼핑 행동과 패키지 디자인'을 테마로 미래포장연의 협력을 얻어 제2회 연구회를 개최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상류·정류·물류 모두 다양화·자동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생활자에게 있어서 '쾌적한 쇼핑'이란? 보다 매력적인 쇼핑 체험은? 그리고 패키지 디자인은 어떻게 되는가? 이들에 관해 회장 참가자와 함께 농밀한 토론을 했다. 후일 JPDA 사이트에 개최 리포트를 게재했다. 더욱이 2020년 봄에는 제3회 연구회를 예정, '서스테인어빌리티와 패키지 디자인'을 메인 테마로 해 토론을 심화해가는 상세 검토 중이다.

포스트 컨슈머의 리사이클을 촉진하기 위해 디자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것은 제1회 연구회에서도 화제가 됐는데, 제도나 구조 등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서스테이너블 사회가 생활자에게 제공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패키지 디자인이 담당하는 역할은? 등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V. ‘교-CROSSING’의 시대

JPDA는 일본패키지디자인협회라는 이름이 보여주듯이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패키지 디자인에 관한 다양한 업종·직종의 회원으로 구성되고 있다. 전술의 조사원 활동은 사회 과제와 패키지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다.

한편으로 디자인의 크리에이티브 면에 중점을 둔 활동도 JPDA사업의 특색으로, 경연사업 외에도 디자인회의, 제안형의 창작전, 각종 세미나나 교육활동, 지적재산에 관한 디자인보호활동, 패키지 디자인의 아카이브, 해외와의 교류 등 다양하다. 회원이 다양하다는 것이야말로 문제의식도, 시점도 다면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패키지/패키지 디자인의 현재·미래를, 사회과제, 테크놀로지, 크리에이티브 등으로 다양하게 중점을 뒤 다양성/다면성이 생기고 있다.

제1회 개최된 디자인협의(국내 교류 위원회와 지역 위원회에서 기획 운영), 2018년 도는 ‘도쿄디자인회의 2019-CROSSING-창조성의 교차’로써 1월에 개최, 패키지 디자인과는 다른 분야의 게스트를 맞이해 토론을 했다.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식품과 아트’, ‘미와 기업문화’ 등 이들 새로운 교차가 디자인의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색선이 되었다.

2020년에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JPDA에서는 오늘날에 요구되는 ‘교-CROSSING’의 콘셉트를 더욱 추진해 사업 전개를 도모해가고 있다.

2020년 6월에는 ‘패키지 디자인의 학교(가칭)’를 만들어 패키지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11월에는 아시아 각 지역의 패키지디자인단체와 협력해 ‘아시아패키지디자인회의’를 JPDA가 호스트가 돼 개최한다.

JPDA 디자인회의와의 동일 개최로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 중이다.

각 사업의 안내는 순차 JPDA 사이트에 게재할 예정으로, 그곳을 열람하길 바란다(www.jpda.or.kr).

패션이나 인테리어 등 패키지와는 다른 분야에서의 세계적 디자인 조류를 살펴보면, 서스테이너블 사회를 배경으로 디지털·테크놀로지와 휴머니티, 아트와의 융합이라는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

상품과 일체가 되는 패키지 디자인이야말로 매일의 생활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제안할 수 있는 강력한 디자인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